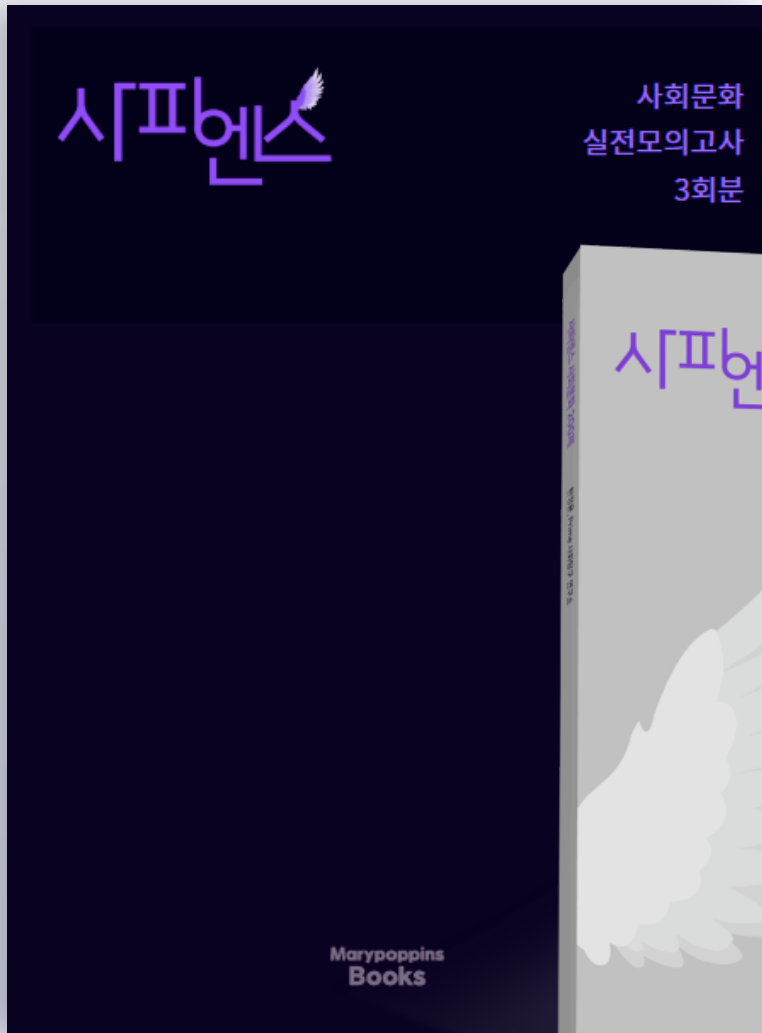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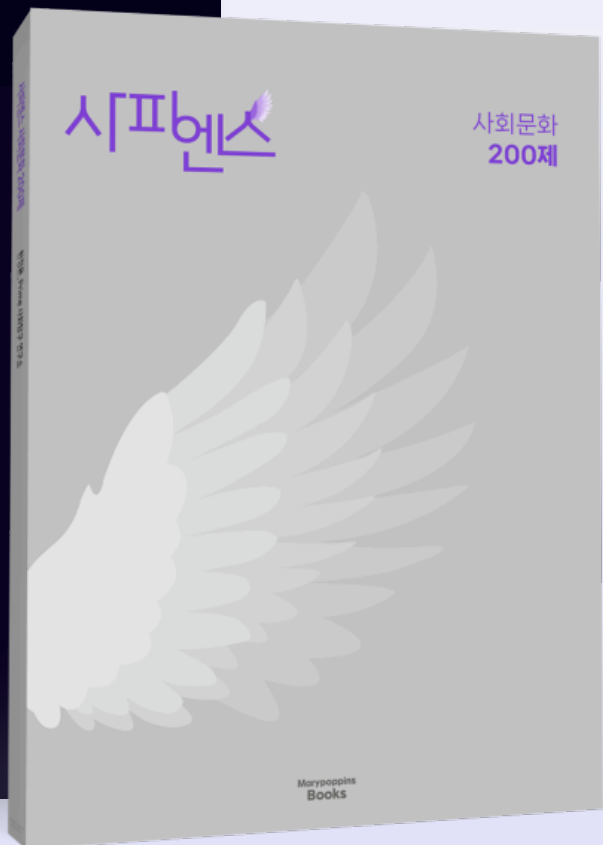


사회·문화, 사피엔스로 미래주머니 효과 그 이상을 누리다



사피엔스 모의고사 시즌1 (3회분)



사피엔스 200제

후기로 검증된 예리한 컨텐츠, 사피엔스에는 선택의 후회가 없습니다.

으아ㅏㅏ 1회 2회 퀄리티 너무너무 좋아요ㅠㅠ
혹시 몇 회까지 계획에 있으실지요??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실모보다 좋아요 ㅠㅠ

한 세트 한 세트 풀 때마다 수능 시험지 1,2,3...같은 느낌을 받았
습니다. 사문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일깨워준 고마운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수능전까지 아껴서 풀고 싶을 정도예요ㅠㅠ 개념과 도표 모두
적절하고 근거 있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난이도 조절과 참신한
유형으로, 모래주머니 효과를 느끼기에 아주 좋은 거 같아요.

타임어택과 개념에 대한 심층적 물음을 모두 잡은 모의고사. 쉽게 풀
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뒤돌아보면 선지 하나하나에 개념의 완전
한 이해를 묻는 모의고사이다. 특히 도표 문제에서마저 개념을 물으며
'사회문화'의 본질을 잡는 모습은 가히 완성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
다. 계산의 복잡함만을 추구하던 기존 모의고사들과 확연한 차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원 출제기조를 성실히 반영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 위 후기는 100%실제 독자 후기입니다.

Head-Master 사회문화 1등급 로드맵

*정식판매 종이책과, 양질의 무료자료로 반드시 최소비용으로 1등급을 만들어드립니다.

*형광펜 친 부분이 정식 판매책, 네모박스가 무료자료입니다. 두가지를 병행하여 1등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 했습니다.

개념 학습	<p>인강 추천 윤성훈T 불후의 명강 , 임정환 Lim it</p> <p>독학서 추천 Sapiens 사회·문화 개념서(헤드마스터 무료 제공), 기출의 파급효과 사회·문화</p>
기출 학습	<p>문제집 추천 마더텅, 자이스토리 등 '교육청 기출'까지 모두 포함한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세요. (사회·문화는 많은 양의 문제 풀이가 필수적인 과목이기에, 교육청 기출에 대한 학습도 매우 중요함)</p>
N제	<p>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는, 최소 '500문항' 가량의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p> <p>Level 1 Headmaster Q150 N제 (헤드마스터 무료 제공) or 손고운T 전공자의 N제 : 기출과 유사한 난이도의 실전 문제 학습을 통한 1등급 가능권의 실력 확보</p> <p>Level 2 ★ 사피엔스 200제 (정식 종이책 판매) : 기출 이상의 고난도 문제 학습을 통한 모래주머니 효과로 1등급을 넘어 만점 가능 최상위권의 실력 확보를 위한 필수 문제집</p>
실전 모의고사	<p>★ 사피엔스 모의고사 (정식 모의고사 판매) : 실전과 가장 유사한, 그러면서도 높은 난이도를 갖춘 실전 모의고사 학습을 통한 실전 연습과 행동 영역의 마련, 빈출 유형과 신유형에 대한 학습</p> <p>✓ 사피엔스 무료 제공 모의고사 (헤드마스터 무료제공 / 아래 목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평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 ② 9평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 ③ 수능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 ④ 교육청 우수 기출 문항 재배치 모의고사 3회
추가 자료 <small>(헤드마스터 무료 자료)</small>	<p>✓ 헤드마스터 무료제공 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청이 알려주는 사회·문화 미출제 요소 ②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문화 분석서 ③ 2026학년도 수능완성 사회·문화 분석서 ④ 사회·문화 중요 선지 정리본

01	02	03	04	05
㉒	㉔	㉕	㉖	㉗
06	07	08	09	10
㉓	㉔	㉑	㉑	㉒
11	12	13	14	15
㉘	㉔	㉓	㉑	㉒
16	17	18	19	20
㉔	㉔	㉕	㉖	㉑

01 정답: ㉒

㉑, ㉓, ㉔은 사회·문화 현상, ㉒, ㉕은 자연 현상이다.

㉒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답 풀이

- ㉑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㉓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㉔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 ㉕ 사회·문화 현상도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2 정답: ㉔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ㄴ.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ㄷ.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ㄱ.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ㄷ.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03 정답: ㉕

㉕ B가 자문화 중심주의이고 (가)에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가?'가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응답은 모두 '아니오'이고 (가)에 대한 응답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오답 풀이

- ㉑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 간 우열을 가린다는 비판을 받는가?'에 '아니오'로 답하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예'로 답한다. 따라서 A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B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A와 B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㉒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에 '예'로 답하고,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오'로 답한다. 따라서 B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A가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A와 B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㉓ 문화 상대주의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는가?'에 '예'로 답하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오'로 답한다. 따라서 A, B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B와 C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㉔ A가 문화 상대주의이고 (가)에 '타 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가?'가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답변은 '예'이고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답변은 '아니오'이므로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04 정답: ㉒

각 번호가 매겨진 특징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2. 갈등론
3. 기능론, 갈등론
4. 기능론
5. 갈등론
6. 상징적 상호 작용론
7. 기능론, 갈등론

이때 두 가지 관점에 해당하는 특징은 기능론, 갈등론에 해당하는 3, 7번 특징의 2개가 유일한데, A에는 해당하지 않고 B, C에 해당하는 특징은 2개가 존재하므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이때 B가 갈등론, C가 기능론이라면 B에는 해당하고 A, C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징이 2개가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B는 기능론, C는 갈등론이다.

A, B, C에 모두 해당하는 특징은 1개이므로 ㉑에 들어갈 수는 '1'이며, A, B에는 해당하지 않고 C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2개이므로 ㉒에 들어갈 수는 '2'이고, A, B에는 해당하고 C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징은 0개이므로 ㉓에 들어갈 수는 '0'이며, A에는 해당하고 B, C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징은 1개이므로 ㉔에 들어갈 수는 '1'이다.

㉕ 3번 특징은 5번 특징과 달리 기능론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오답 풀이

- ㉑ ㉑과 ㉒의 합은 3, ㉓과 ㉔의 합은 1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㉓ 6번 특징은 2번 특징과 달리 갈등론에 해당하는 특징이 아니다.
- ㉔ 사회는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㉕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05 정답: ㉑

㉑ (가)에서는 갑국의 천문학 지식이 을국 학자들이 자국에 맞는 역법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되

었다는 것에서 자극 전파가 나타난다. 반면 (나)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나)에서는 정국이 병국을 식민 지배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는 정국의 악기, 의복이 병국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인지, 또는 병국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나)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③ (가)에서는 을국의 철학 사상이 갑국의 전통 사상과 융합되었다는 것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도 정국의 악기가 병국의 전통 음악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연주 방식이 탄생했다는 것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병국 사람들이 자국의 의복을 버리고 정국 사람들의 의복만을 입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에서는 서적을 통해 수입된 갑국의 학파를 주류 철학 사상으로 받아들이었다는 데에서 간접 전파가 나타난다.

06 정답: ③

문화 2, 문화 5는 A~C 지역이 모두 향유하는 문화이므로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이때 B 지역은 C 지역과 달리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를 향유하는데, 이는 C 지역이 향유하는 하위문화는 모두 반문화인 것을 의미하므로 문화 3, 문화 4는 반문화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 지역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를 향유하므로 문화 6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인 것을 알 수 있으며, A 지역이 향유하는 주류 문화의 수는 반문화의 수의 2배라는 것에서 A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는 1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문화 3에 해당하므로 A 지역이 향유하는 문화 1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 ③ B 지역이 향유하는 하위문화의 수는 2개, C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는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문화 1은 문화 4와 달리 반문화가 아니다.
- ② 문화 3과 문화 6은 모두 하위문화이다.
- ④ A 지역이 향유하는 주류 문화의 수는 2개, B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는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C 지역이 향유하는 하위문화의 수는 2개, A 지역이 향유하는 반문화의 수는 1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07 정답: ④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갑~무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정	무
□□ 대학교	○	○	×	×	×
여행 연합 동아리	○	×	×	○	×
○○ 회사	×	×	○	×	×
총동창회	×	×	○	○	×
고시 스테디	×	○	×	×	○
축구 동호회	○	×	×	×	○

- ④ 병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 회사, 총동창회의 2개이고 정 또는 무가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여행 연합 동아리, 총동창회, 축구 동호회의 3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적다.

오답 풀이

- ① 갑의 발화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 대학교, 여행 연합 동아리의 2개이고 병의 발화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 회사, 대학원, 총동창회의 3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무의 발화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는 고시 스테디, 축구 동호회의 2개이고 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은 □□ 대학교, 여행 연합 동아리, 축구 동호회의 3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을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 대학교, 고시 스테디의 2개, 무가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고시 스테디, 축구 동호회의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많지 않다.
- ⑤ 갑 또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여행 연합 동아리, 고시 스테디, 축구 동호회의 3개,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은 ○○ 회사, 총동창회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08 정답: ①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갈등론이다.

- ㄱ.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할 현상으로 본다.
- ㄴ. 갈등론은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재생산의 수단으로 본다.

오답 풀이

- ㄷ. 균등 분배가 인재의 배치 과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ㄹ. 사회적 최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09 정답: ①

- ① 갑의 연구에서 A 집단은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알림을 총 30번 받았고, B 집단은 스마트폰 알림을 총 6번 받았다. 그리고 이는 갑의 연구에서 두 실험 집단을 구분짓는 독립 변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에서 독립 변수는 '스마트폰 알림의 횟수'이다.

오답 풀이

- ② A 집단과 B 집단은 모두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 ③ 갑의 연구에서 ㉠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나, 을의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이후 진행된 을의 연구 단계도 여전히 자료 분석 단계이므로 가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은 을이 그의 연구를 통해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 수집한 자료이므로 을이 수집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10 정답: ②

갑은 실험법, 을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활용하였다.

* 갑의 연구에서 행동 관찰자가 주의 분산 여부를 기록한 것은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참여 관찰법을 활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을의 연구에서 일기 자료를 수집한 것은 을이 그의 연구를 통해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므로 문헌 연구법을 활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갑과 달리 을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유대 관계의 형성이 중요한 면접법을 활용하였다.

오답 풀이

- ① 갑과 을은 모두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문헌 연구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③ 을은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활용하였으며, 갑은 이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지 않았다.
- ④ 갑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한 참여 관찰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⑤ 을은 방법론적 이론에 기초한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면접법을 활용하였으나, 갑은 면접법 또는 참여 관찰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11 정답: ②

A에서는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므로 A는 정보 사회이며, B에서는 정보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므로 B는 산업 사회이다.

- ㄱ.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보다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다양성이 크다.
- ㄴ.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보다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가 작다.

오답 풀이

- ㄷ.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보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낮다.
- ㄹ.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보다 사회 변동의 속도가 느리다.

12 정답: ④

- ④ 을국의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이라면, A는 중층, B는 상층, C는 하층이다. 따라서 갑국의 중층 비율과 병국의 상층 비율은 모두 10%로 같다.

오답 풀이

- ① A가 상층이고 C가 하층이라면 B는 중층이다. 이때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갑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
- ② B가 중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A는 하층이다. 이때 병국의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적고 하층이 가장 많은 계층 구조가 아니므로 모래시계형이 아니다.
- ③ 갑국의 계층 구조라 피라미드형이라면, A는 상층, C는 중층, B는 하층이다. 이때 을국의 중층 비율은 50%, 병국의 상층 비율은 30%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병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라면 C는 중층이다. 이때 을국은 상~하층 중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갑국은 상~하층 중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지 않다.

13 정답: ③

- ③ ㉠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을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조직적인 사회 운동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일회성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사회 운동이 아니다.
- ② ㉢에서 희귀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문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 문화의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는 사례로 볼 수 없다.
- ④ ㉣은 ○○ 글로벌 식품 기업이 이미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 글로벌 식품 기업의 역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에는 특정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지구 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양상이 나타나 있고, 이에 관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특성이 부각되어 있는 사례로 볼 수 없다.

14 정답: ①

각 질문별 '예'로 답변할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2. 낙인 이론
3. 머튼의 아노미 이론
4.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5.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때 세 가지의 이론이 '예'로 답변하는 질문은 4번 질문이 유일한데, ㉡에 대해서는 A~C가 모두 '예'로 답하므로 ㉡은 4번 질문이고 D는 낙인 이론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낙인 이론과 타 이론이 모두 '예'로 답변하는 질문은 1번 질문이 유일한데, ㉢에 대한 A와 낙인 이론의 답변은 모두 '예'이므로 ㉢은 1번 질문이고 A는 차별 교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에 대해서는 A~C가 모두 '아니요'로 답변하는데, A~D가

모두 '아니요'로 답변할 질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D, 즉 낙인 이론은 '예'로 답해야 한다. 따라서 ㉠은 2번 질문이다.

B, C는 각각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인데, 5번 질문에 대해서는 두 이론 모두 '예'로 답하므로 해당 질문은 ㉠이 될 수 없다. 따라서 5번 질문은 ㉡이고, ㉠은 3번 질문이며, B는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질문에 대한 A~D의 답변 결과를 완성하여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3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2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5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1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4번	예	예	예	아니요

① 음영 처리된 부분 중 '아니요'가 들어갈 칸의 수는 6개, '예'가 들어갈 칸의 수는 2개로 전자는 후자의 3배이다.

오답 풀이

- ② ㉠은 3번 질문이나, ㉡은 5번 질문이다.
- ③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④ 중상층 계층보다 하층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⑤ 일탈 행동에 따른 부정적 평판이 개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15 정답: ②

t년 전체 인구에서 (가) 수급자는 12%, (나) 수급자는 73%이고 제도 수급자는 75%이므로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10%이다. 따라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2%,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63%이다. 따라서 t년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둔다면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2,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10,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63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빈곤 인구가 아닌 (가) 수급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가) 수급자는 빈곤 인구이다. 따라서 빈곤 인구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2,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10으로 (가) 수급자는 총 12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빈곤 인구의 60%이므로 전체 빈곤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 인구에서 (나) 수급자는 80%이므로 빈곤 인구 (나) 수급자는 16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제도 수급자는 18임을, 그리고 빈곤 인구 중 제도 수급자 비율은 9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값은 90이다.

t+20년 전체 인구에서 (가) 수급자는 10%, (나) 수급자는 60%이고 제도 수급자는 64%이므로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6%이다. 따라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4%,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54%이다. 이때 갑국의 t+20년 전체 인구는 t년의 1.5배이므로 해당 인구는 150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6, (가)와 (나) 중복 수

급자는 9,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81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빈곤 인구가 아닌 (가) 수급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가) 수급자는 빈곤 인구이다. 따라서 빈곤 인구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6,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9로 (가) 수급자는 총 15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빈곤 인구의 75%이므로 전체 빈곤 인구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 인구에서 제도 수급자는 80%이므로 빈곤 인구 (가) 또는 (나) 수급자는 16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빈곤 인구에서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값은 50이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별/빈곤 여부별 (가), (나) 수급자 수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20년	
	전체 인구	빈곤 인구	전체 인구	빈곤 인구
(가) 수급자	12	12	15	15
(나) 수급자	73	16	90	1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10	10	9	9

②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t년 빈곤 인구 수급자 수는 16, 그렇지 않은 공공 부조의 t+20년 전체 인구 수급자 수는 15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에 들어갈 값은 90, ㉡에 들어갈 값은 50으로 전자는 후자의 1.5배가 아니다.
- ③ 한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t년 전체 인구 수급자 수는 65, t+20년 빈곤 인구 수급자 수는 7으로 전자는 후자의 10배보다 많지 않다.
- ④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t+20년 빈곤 인구 수급자 수는 6, t년 전체 인구 중복 수급자 수는 1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다.
- ⑤ 빈곤 인구 비(非)수급자 수는 t+20년이 4, t년이 2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16 정답: ④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ㄴ. 순환론은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 ㄹ. 순환론은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역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오답 풀이

- ㄱ.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진화론이다.
- ㄷ.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진화론이다.

17 정답: ④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빈곤의 유형은 절대적 빈곤이다.

- ㄴ.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분류한다.

ㄷ. 절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답 풀이

ㄱ. 절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18 정답: ⑤

질문 1은 관료제가, 질문 2와 질문 3은 탈관료제가 '예'로 답할 질문이다. 이때 A가 관료제, B가 탈관료제라면 A와 달리 B가 '예'로 답할 질문의 개수는 최소 2개가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고 (가)에는 관료제와 달리 탈관료제가 '예'로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ㄱ.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ㄴ. 관료제는 탈관료제와 달리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ㄷ. '업무 체계의 전문화와 세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가?'는 탈관료제와 달리 관료제가 '예'로 답할 질문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19 정답: ②

② ㉠에는 문화가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문화의 학습성이 부각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물질문화이다.

③ ㉡과 ㉢에는 모두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는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④ ㉢에는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로써의 총체라는 문화의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으나, ㉡에는 부각되어 있지 않다.

⑤ ㉣에는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서 개별 문화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문화를 바라보는 비교론적 관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20 정답: ①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므로, 해당 인구를 100으로 둘 수 있다. 이때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 비율은 30%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3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부양 인구 / 유소년 인구)이므로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이다. 따라서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는 2이므로 부양 인구는 60임을 알 수 있으며, 노년 인구는 10임을 알 수 있다.

을국의 t년 유소년 인구 비율은 18%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18임을 알 수 있으며, 노년 부양비 대비 노령화 지수의 비, 다시 말해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는 4이므로 부양 인구는 7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 인구는 10임을 알 수 있다.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의 증가율은 을국이 140%로 갑국

의 0.7배이다. 따라서 갑국의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의 증가율은 200%임을 알 수 있으며, 갑국의 t+20년 노년 인구는 30임을, 을국의 t+20년 노년 인구는 24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갑국의 t+20년 노년 부양비 대비 노령화 지수의 비, 다시 말해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는 3이므로 부양 인구를 3a, 유소년 인구를 a로 둘 수 있다. 그리고 갑국의 t+20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a/4a+30) \times 100\% = 20\%$, $a=3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의 t+20년 유소년 인구는 30, 부양 인구는 9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을국의 t+20년 노년 부양비 대비 노령화 지수의 비, 다시 말해 유소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는 7이므로 부양 인구를 7b, 유소년 인구를 b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을국의 t+20년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이므로 $(b/8b+24) \times 100\% = 10\%$, $b=12$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국의 t+20년 유소년 인구는 12, 부양 인구는 84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20년	t년	t+20년
노년 인구	10	30	10	24
부양 인구	60	90	72	84
유소년 인구	30	30	18	12
전체 인구	100	150	100	120

①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 갑국이 40, t+20년 을국이 36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②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t+20년 갑국이 60%, t년 을국이 72%로 전자는 후자보다 낮다.

③ t년 대비 t+20년에 증가한 부양 인구는 갑국이 30, 을국이 12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④ 유소년 부양비는 t년 갑국이 50, 을국이 25로 t년에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t+20년 갑국이 100/3, 을국이 100/7으로 t+20년에도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⑤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의 합은 t+20년 갑국이 120, t년 을국이 90으로 전자는 후자의 1.5배가 아니다.

예상 등급 컷

1등급: 42점

2등급: 38점

3등급: 35점

01	02	03	04	05
㉒	㉑	㉒	㉔	㉕
06	07	08	09	10
㉕	㉔	㉒	㉑	㉕
11	12	13	14	15
㉕	㉔	㉓	㉒	㉔
16	17	18	19	20
㉒	㉒	㉑	㉕	㉕

01 정답: ㉒

- ㉑, ㉕은 사회·문화 현상, ㉒, ㉔은 자연 현상이다.
- ㉒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오답 풀이

- ㉑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이 아닌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㉓ ㉒과 같은 현상과 ㉔과 같은 현상은 모두 자연 현상으로,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㉔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불가치적이지 않고 가치 함축적이다.
- ㉕ ㉒과 같은 현상과 ㉑과 같은 현상은 모두 사회·문화 현상으로,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02 정답: ㉑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㉑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㉒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㉑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 ㉒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03 정답: ㉒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이다.

- ㉑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이 낮다.
- ㉒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 ㉑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㉒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가 강조되지 않는다.

04 정답: 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갑~정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	을	병	정
회사	○	○	×	×
사내 노동조합	○	○	×	×
대학	×	×	○	○
대학 테니스 동아리	×	×	○	○
총학생회	×	×	×	○
자전거 동호회	×	○	×	×

- ㉑ 1회 시나리오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회사, 사내 노동조합의 2개이고 2회 시나리오에 나타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대학, 고등학교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 ㉒ 3회 시나리오에 나타난 2차 집단의 개수는 총학생회, (대) 학교, 자전거 동호회의 3개이고 을이 속한 이익 사회는 회사, 사내 노동조합, 자전거 동호회의 3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 ㉑ 갑이 속한 공식 조직의 개수는 회사, 사내 노동조합의 2개이고 정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 테니스 동아리, 총학생회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㉒ 병이 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대학의 1개, 갑과 을이 동시에 속한 사회 집단의 개수는 회사, 사내 노동조합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05 정답: ㉕

- ㉕ 모둠 A는 1일 차와 2일 차 모두에서 감시자의 존재 없이 활동을 진행하였고, 모둠 B는 1일 차와 달리 2일 차에서 감시자가 존재하는 상태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둠 A의 규칙 행동 준수 정도는 1일 차와 2일 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둠 B의 2일 차 규칙 행동 준수 정도는 1일 차 규칙 행동 준수 정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둠 B의 2일 차 규칙 행동 준수 정도는 독립 변수가 처치된 결과, 모둠 A의 2일 차 규칙 행동 준수 정도는 독립 변수가 처치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두 결과 간 차이, 다시 말해 ㉑과 ㉒ 간 차이에 의해 ㉑은 수용되었을 것이다.

오답 풀이

- ㉑ 갑은 그의 연구에서 1일 차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 탈출 게임 형식의 활동을 하게끔 하는 사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 ㉒ 독립 변수가 처치된 모둠 A는 통제 집단, 독립 변수가 처치된 모둠 B는 실험 집단에 해당하며, 모둠 C는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중 무엇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㉑ ㉑은 독립 변수, 즉 '감시자의 존재'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다.
- ㉒ ㉒은 갑이 그의 연구에서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06 정답: ㉕

- ㉕ 갑국에서는 식사 중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는 전통적 문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는 것에서 해당 문화가 주류 문화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사 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양식이 되었다는 것에서 해당 문화는 주류 문화로서의 성격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에는 주류 문화가 그 성격을 잃는 양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㉔에는 강압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렇기에 그로 인해 일시적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양상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 ② ㉔은 주류 문화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하위문화에 해당하나, 이것이 해당 문화가 처음부터 주류 문화에 대한 대항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③ ㉔은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간 변동 속도 차이는 관련이 없는 결과이다.
- ④ ㉔은 하위문화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양상에 해당하나, 해당 긍정적인 결과가 바로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07 정답: ④

- ④ 다음 글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다국적 기업과 같은 당사자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국가적 행위체의 활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조정'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음 글에서는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와 소비 체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다음 글에서는 지구 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 원칙의 수립에 대한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를 이미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서 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당사자에 대해서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⑤ 다음 글에서는 문제 대응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마련에 대한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08 정답: ②

- ② A는 청각 장애인 출신으로서 차별을 받았고, E는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서 차별을 받았으므로 모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오답 풀이

- ① A와 B는 모두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다. B는 이주 전 여성으로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했으나, 이주 후 이주 배경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게 되었고, 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한 적은 없다.
- ③ D는 차별 방지를 위한 '규범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 ④ A와 C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역 할당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 ⑤ B와 E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

09 정답: ①

갑은 누구나 알게 된다는 점에서 C라고, 병은 이전에 비해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E라고 생각했다는 교사의 발화에 따르면 C는 공유성, E는 변동성임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을은 옳게 발표했으므로 D는 축적성임을, 갑이 발표한 사례에서 부각된 것이 A, 병이 발표한 사례에서 부각된 것이 B라는 교사의 발화에 따르면 A는 학습성, B는 전체성임을 알 수 있다.

- ① 학습성은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오답 풀이

- ②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속성은 공유성이다.
- ③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속성은 전체성이다.
- ④ 문화 요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의미하는 속성은 변동성이다.
- ⑤ 문화가 세대를 전승하며 더욱 풍부해짐을 의미하는 속성은 축적성이다.

10 정답: ⑤

부모 세대 A 인구를 a, B 인구를 b, C 인구를 c로 둔다면 $a+b+c=100\%$ (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세대 계층 인구 대비 자녀 세대 최초 계층 인구의 상대적 비에 의하면 자녀 세대 최초 A 인구는 a, B 인구는 $3b$, C 인구는 $0.5c$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a+3b+0.5c=100\%$ (㉒)임을 알 수 있으며, ㉑과 ㉒을 연립하면 $c=4b$ 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세대 계층 인구 대비 자녀 세대 현재 계층 인구의 상대적 비에 의하면 자녀 세대 현재 A 인구는 $0.4a$, B 인구는 $2b$, C 인구는 $1.5c$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0.4a+2b+1.5c=100\%$ (㉓)임을 알 수 있으며, ㉑과 ㉓을 연립하면 $16b+11c=600$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b=10\%$, $c=40\%$ 임을 알 수 있으며, $a=50\%$ 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 부모 세대 계층, 자녀 세대 최초 계층, 자녀 세대 현재 계층 비율(단위: %)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최초	자녀 세대 현재
A	50	50	20
B	10	30	20
C	40	20	60

이때 자녀 세대 최초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므로 A는 하층, B는 상층, C는 중층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 부모 세대 계층, 자녀 세대 최초 계층, 자녀 세대 현재 계층 비율(단위: %)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최초	자녀 세대 현재
상층	10	30	20
중층	40	20	60
하층	50	50	20

갑은 부모 세대 계층에서 최초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2만큼의 거리를 상승 이동하였으므로 갑의 부모 세대 계층은 하층, 갑의 최초 계층은 상층이다. 그리고 갑은 최초 계층에서 현재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하강 이동했으므로 갑의 현재 계층은 중층이다.

을은 부모 세대 계층에서 최초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하강 이동하였고, 최초 계층에서 현재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하강 이동하였다. 따라서 을의 부모 세대 계층은 상층, 최초 계층은 중층, 현재 계층은 하층이다.

병은 부모 세대 계층에서 최초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2만큼의 거리를 하강 이동하였으므로 병의 부모 세대 계층은 상층, 갑의 최초 계층은 하층이다. 그리고 병은 최초 계층에서 현재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상승 이동했으므로 병의 현재 계층은 중층이다.

정은 부모 세대 계층에서 최초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상승 이동하였고, 최초 계층에서 현재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1만큼의 거리를 상승 이동하였다. 따라서 정은 부모 세대 계층은 하층, 최초 계층은 중층, 현재 계층은 상층이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정의 부모 세대 계층, 최초 계층, 현재 계층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부모 세대 계층	최초 계층	현재 계층
갑	하층	상층	중층
을	상층	중층	하층
병	상층	하층	중층
정	하층	중층	상층

⑤ 을의 부모 세대 계층은 정은의 최초 계층과 달리 상층이다.

오답 풀이

- ① 부모 세대 상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자녀 세대 현재 하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자녀 세대 현재 계층은 부모 세대 계층과 달리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아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 ③ 갑의 부모 세대 계층은 을의 최초 계층과 달리 중층이 아닌 하층이다.
- ④ 병의 현재 계층은 정은의 부모 세대 계층과 달리 하층이 아닌 중층이다.

11 정답: ⑤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 을은 문화 상대주의, 병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풀이

- 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의 보존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②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③ 문화 상대주의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④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모두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 간 우열을 가린다는 비판을 받는다.

12 정답: ④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ㄴ.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본다.
- ㄹ. 사회 실재론은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식 개선보다 제도 개혁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 ㄱ.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ㄷ.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13 정답: ③

A는 질문지법, B는 면접법이다.

* 갑이 ○○ 고등학교의 자습실에 관찰자를 배치한 것은 해당 관찰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갑이 참여 관찰법을 활용한 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질문지법과 면접법 모두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오답 풀이

- ① 질문지법은 실제성이 높은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지 않다.
- ② 질문지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
- ④ 면접법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지 않는다.
- ⑤ 면접법은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14 정답: ②

갑은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을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하였다.

을의 사례에 대한 채점 결과는 3점이고 을은 두 가지 일탈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하였으나 을의 사례에 대한 학생의 응답에서 ○은 1개이므로 해당 응답이 옳지 않은 응답이라면 을의 사례에 대한 채점 결과는 최대 2점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해당 응답은 옳은 응답이고,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또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이다. 또한 병의 사례에 대한 채점 결과는 0점이므로 A, C는 각각 낙인 이론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 B, D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D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이때 A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C가 낙인 이론이라면 갑의 사례에 대한 채점 결과는 3점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낙인 이론, C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② 낙인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오답 풀이

- ① ㉠에 대한 채점 결과는 '옳지 않음', ㉡에 대한 채점 결과는 '옳음'으로 서로 다르다.
- ③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모두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 ④ 일탈 집단과의 교류로 일탈이 학습된다고 보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 ⑤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 모두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한 일탈 행동의 발생에 관심을 둔다.

15 정답: ④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다. 이에 따라 ㉠에는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의 공통점이, ㉡에는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A 지역에서 비(非)수급자 비율은 36%이므로 (가) 또는 (나) 수급자 비율은 64%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을 a%라 하면 $(16+54-a)\%=64\%$ 이므로 $a=6$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지역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1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6%,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48%임을 알 수 있다.

B 지역에서 비(非)수급자 비율은 32%이므로 (가) 또는 (나) 수급자 비율은 68%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을 b%라 하면 $(30+56-b)\%=68\%$ 이므로 $b=18$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지역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12%,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18%,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38%임을 알 수 있다.

C 지역에서 비(非)수급자 비율은 50%이므로 (가) 또는 (나) 수급자 비율은 50%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을 c%라 하면 $(18+44-c)\%=50\%$ 이므로 $c=12$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지역에서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6%,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비율은 12%,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32%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A~C 지역의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10	12	6
(가)와 (나) 중복 수급자	6	18	12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48	38	32

이때 중복 수급자 수는 A~C 지역이 모두 같으므로 B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를 200으로 두면 C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300, A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60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A~C 지역의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가)와 (나) 중복 수급자,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60	24	18
(가)와 (나) 중복 수급자	36	36	36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288	76	96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288, B 지역이 96으로 전자는 후자의 3배이다.

오답 풀이

- ① ㉠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존재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에는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됨.'이 들어갈 수 없다.
- ②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324, B 지역이 112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다.
- ③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6%, B 지역이 12%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⑤ (가)와 (나) 중 한 가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58%, B 지역이 50%, C 지역이 38%로 B 지역이 A 지역보다 낮고, C 지역보다 높다.

16 정답: ②

② B국에서는 A국의 EDM을 자국의 전통 악기 리듬과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였다는 것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C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B국에서는 A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의 밈이 B국으로 확산되어 EDM이 유행하였다는 것에서 간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A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A국에서는 B국의 댄서들이 활용한 음악이 해당 국가의 길거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EDM이 유행하였다는 것에서 문화 공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국에서도 B국의 댄서들이 활용한 음악이 해당 국가의 길거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국의 음악'이 B국식으로 변질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에서 문화 공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④ A~C국에서는 모두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B국의 음악이 급속도로 C국 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은 C국 내에서 자국의 문화가 향유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므로 문화 동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A국과 C국에서는 B국의 댄서들이 A국과 C국으로 건너가 공연을 진행하였다는 것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국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17 정답: ②

② ㉢은 기업인이라는 지위를 가질 것을 예상하며 갑이 수행

한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은 갑의 어머니의 성취 지위이나, ㉡은 갑의 성취 지위가 아니다.
- ③ ㉢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은 '갑이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 ④ ㉤은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이 ㉦을 통해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맞으나, ㉥이 처음부터 ㉦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아니다.

18 정답: ①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ㄱ. 순환론은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 ㄴ. 순환론은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역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오답 풀이

- ㄷ.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진화론이다.
- ㄹ.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진화론이다.

19 정답: ③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 차이를 부정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기능론은 '아니오', 갈등론은 '예'로 답한다. 따라서 A는 기능론, B는 갈등론이다.

이때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대해 기능론은 '아니오', 갈등론은 '예'로 답한다. 따라서 (가)에 대한 기능론의 응답은 '예'가 되어야 하고, ㉠은 '0개' 또는 '1개'이다.

- ㄱ.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ㄴ.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정당하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대한 갈등론의 응답은 '아니오'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에 들어갈 것은 '1개'이다.

오답 풀이

- ㄷ. ㉠에 '0개'가 들어간다면 (가)에는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예'로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기능론의 응답은 '아니오'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20 정답: ⑤

t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a%, C 비율은 3a%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A - C) 비율은 2a%이고 B / (A + C)의 값은 1이므로 B 비율은 2a%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a+2a+3a)%=100%이므로 a=10인 것을, 이에 따라 t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0%, B 비율은 20%, C 비

율은 30%인 것을 알 수 있다.

t+50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b%, C 비율은 b%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A - C) 비율은 4b%이고 B / (A + C)의 값은 1/2이므로 B 비율은 2b%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b+2b+b)%=100%이므로 a=12.5인 것을, 이에 따라 t+50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62.5%, B 비율은 25%, C 비율은 12.5%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 을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3c%, C 비율은 c%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A - C) 비율은 2c%이고 B / (A + C)의 값은 1/2이므로 B 비율은 c%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c+c+c)%=100%이므로 c=20인 것을, 이에 따라 t년 을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60%, B 비율은 20%, C 비율은 20%인 것을 알 수 있다.

t+50년 을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d%, C 비율은 2d%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A - C) 비율은 3d%이고 B / (A + C)의 값은 1이므로 B 비율은 3d%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d+3d+2d)%=100%이므로 d=10인 것을, 이에 따라 t년 갑국의 인구 구성에서 A 비율은 50%, B 비율은 30%, C 비율은 20%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므로 해당 인구를 100으로 둘 수 있으며, t년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40이므로 A는 부양 인구, B는 노년 인구, C는 유소년 인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년 갑국의 노년 인구는 20, 부양 인구는 50, 유소년 인구는 30임을 알 수 있다.

이때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부양 인구는 50% 증가하였으므로 t+50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75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연도 갑국의 부양 인구 비율은 62.5%이므로 전체 인구는 120임을 알 수 있으며, 유소년 인구 비율은 12.5%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15, 노년 인구는 30임을 알 수 있다.

t년 을국에서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 부양 인구 비율은 60%이므로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20, 부양 인구는 60임을 알 수 있다. 이때 t년 대비 t+50년에 을국의 노년 인구는 50% 증가하였으므로 t+50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3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연도 을국의 노년 인구 비율은 30%이므로 전체 인구는 100임을 알 수 있으며, 부양 인구 비율은 50%이므로 부양 인구는 50, 유소년 인구는 20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연령별, 전체 인구를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	20	30	20	30
부양 인구	50	75	60	50
유소년 인구	30	15	20	20
전체 인구	100	120	100	100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 갑국이 50, 을국이 40이고 t+50년 갑국이 45, 을국이 50이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은 감소하였고, 을국은 증가하였다.

오답 풀이

- ①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30, 을국의 노년 인구는 2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② t+50년 을국의 부양 인구는 50, 갑국의 노년 인구는 3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년 갑국이 $200/3$, 을국이 100으로 을국이 갑국의 2배가 아니며, t+50년 갑국이 200, 을국이 150으로 갑국이 을국의 2배가 아니다.
- ⑤ 을국의 t년 유소년 부양비는 $100/3$, t+50년 노년 부양비는 60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그러나 갑국의 t년 유소년 부양비는 60, t+50년 노년 부양비는 40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예상 등급 컷

1등급: 38점

2등급: 35점

3등급: 31점

01	02	03	04	05
⑤	②	③	③	①
06	07	08	09	10
②	④	②	①	①
11	12	13	14	15
②	①	④	③	②
16	17	18	19	20
④	⑤	④	⑤	④

01 정답: ⑤

- ㉠,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답 풀이

- 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존재 법칙이 아닌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 ③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④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02 정답: ②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ㄱ. 사회 실재론은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 ㄴ. 사회 실재론은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위치해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ㄱ.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ㄴ.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03 정답: ③

- ㄱ. 을은 사내 윤리상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것에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갑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얻지 않았다. *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갑은 관광 관련 기업에 입사하고자 취업 준비를 하였다는 것에서 여기 사회화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을은 여기 사회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ㄱ. 갑과 을은 모두 역할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다. 갑이 회사의 작은 규모에 망설인 것, 을이 강한 윤리적 갈등을 느낀 것은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충돌하여 발생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할 갈등이 아니다.

04 정답: ③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 병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에

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능동성을 중시한다.

오답 풀이

- ① 기능론은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지 않는다.
- ② 갈등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는다.
- ④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⑤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모두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05 정답: ①

(가) 문화는 1990년대에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2010년대에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 문화는 주류 문화에, 2010년대에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B는 반문화, C는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 ① (가)에는 'C', (나)에는 'A'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주류 문화는 모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그리고 반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
- ③ 한 사회 내에서 세대 문화는 반문화가 아니라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 ④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와 주류 문화 중 한 사회 내 문화 동질성을 높이는 데 더 기여하는 것은 주류 문화이다.
- ⑤ 반문화와 주류 문화 모두 전체 사회의 문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한다.

06 정답: ②

② 그림에서는 대중문화가 세대 간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령에 따른 사회 집단 간 단절을 유발한다.'이다.

오답 풀이

- ① 그림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③ 그림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④ 그림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⑤ 그림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에 해당한다.

07 정답: ④

④ (가)에는 문화의 변동성,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고, (나)에는 문화의 변동성, 공유성,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전체성에 대한 진술인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이다.

오답 풀이

- ① 문화의 학습성에 대한 진술이다.
- ② 문화의 축적성에 대한 진술이다.

- ③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진술이다.
- ⑤ 문화의 공유성에 대한 진술이다.

08 정답: ②

② 다음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경쟁 상황'이다. 그리고 값은 1일 차와 달리 2일 차에 각 모둠에게 경쟁 모둠의 존재를 공지하였으므로 독립 변수는 1일 차와 달리 2일 차에 처치되었다.

오답 풀이

- ① 값의 연구에서 두 모둠은 모두 경쟁 상황이라는 독립 변수가 처치된 모둠이다. 따라서 ㉠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이 아닌, 두 실험 집단의 구분이다.
- ③ ㉠과 ㉡은 모두 '협력적 과업 수행 방식'이라는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④ 값은 그의 연구에서 1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2차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 ⑤ 값은 2일 차에 전날과 동일한 과제를 각 모둠에게 다시 제시하였다. 따라서 두 모둠 모두에 있어 과제를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이 1일 차에 비해 2일 차에 현저히 줄어든 것이 경쟁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전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다음 연구가 '경쟁 상황은 과업 수행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09 정답: ①

마지막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틀림'인데, 해당 질문에 '예'로 답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뿐이다. 따라서 낙인 이론이 B~D 중 하나라면 해당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맞음'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A는 낙인 이론이다. 이때 첫 번째 질문에서 해당 질문에 A는 '예'로 답하는데, B, C 중 차별 교체 이론이 존재한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틀림'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D는 차별 교체 이론이다.

이때 B가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 C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맞음'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B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C는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이다.

① ㉠에 들어갈 것은 '맞음'이다.

오답 풀이

- ②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하는 것은 뒤르캬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③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④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 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것은 낙인 이론, 차별 교체 이론이다.

10 정답: ①

부모 세대 계층 구성 비율의 차이에서 (A - B)의 비율에서 (B - C)의 비율을 뺀다면 A-2B+C=10%가 된다. 이때 A+B+C

=100%이므로 3B=90%, B=3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각 비율에 대입하면 A는 50%, C는 20%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세대 계층 구성 비율의 차이에서 (A - B)의 비율에서 (B - C)의 비율을 뺀다면 A-2B+C=-20%가 된다. 이때 A+B+C=100%이므로 3B=120%, B=4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각 비율에 대입하면 A는 30%, C는 30%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세대 간 이동 현황에서 A는 상승 이동을 한 인구가 없으므로 하층, C는 하강 이동을 한 인구가 없으므로 상층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는 중층이고,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별 인구 비율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30%
중층				40%
하층				30%
전체	20%	30%	50%	100%

자녀 세대 하층에서 하강 이동한 인구 비율은 40%이므로 계층을 대물림한 인구 비율은 60%이다. 따라서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 세대 중층에서 상승 이동한 인구 비율은 55%이므로 상승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하강 이동한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8%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세대 상층에서 상승 이동한 인구 비율은 80%이므로 계층을 대물림한 인구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6%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현황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6%			30%
중층	8%	10%	22%	40%
하층			18%	30%
전체	20%	30%	50%	100%

각 세대에 따른 계층별 비율에 의거해 남아 있는 계층 이동 현황을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6%	14%	10%	30%
중층	8%	10%	22%	40%
하층	6%	6%	18%	30%
전체	20%	30%	50%	100%

①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6%,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6%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②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8%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③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자녀 인구는 전체 인구의 46%,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자녀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④ 부모 세대 계층 인구 대비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인구의 비는 상층이 3/10, 하층이 9/25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부모 세대 상층 인구 비율과 중층 인구 비율의 합은 50%,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은 40%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11 정답: ②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ㄱ. 순환론은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ㄴ.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오답 풀이

- ㄴ.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 ㄷ.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12 정답: ①

- ① A가 을국의 주류를 갑국에도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갑국 매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류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서 갑국에서 직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병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을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 을국에서 문화 접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 것은 맞으나, 해당 문화 접변이 강제적 문화 접변인 것은 아니다.
- ③ 을국에서는 A의 발효 균주와 제조법이 을국에서 판매되었다는 것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나, 갑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A가 새로운 과실 주를 개발한 것은 발명에 해당하므로 이는 문화 접변의 결과물인 문화 동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④ 을국에서는 발효 균주라는 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났으나, 갑국에서는 비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⑤ 을국에서는 발효 균주와 제조법이 공장식 주류 생산 체계와 결합하였다는 것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나, 갑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다.

13 정답: ④

- ㄱ. 자료에 적혀 있는 갑의 성취 지위는 '건축가'의 1개, 전체

성취 지위는 '건축가', '사업가'의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적다.

- ㄴ.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 조직은 '건설사', '지방 자치 단체'의 2개, 비공식 조직은 '사내 자전거 소모임'의 1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2개 많다.
- ㄷ.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사내 자전거 소모임', '동호회'의 2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건설사', '지방 자치 단체', '사내 자전거 소모임', 'SNS', '동호회'의 5개로 후자는 전자보다 3개 많다.

오답 풀이

- ㄴ. 자료에는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1차 집단이 적혀 있지 않다.

14 정답: ③

갑이 제시한 사례는 문헌 연구법, 을이 제시한 사례는 질문지법, 병이 제시한 사례는 실험법이 활용된 사례이다. 이때 ㉠이 문헌 연구법, ㉡이 실험법이라면 갑이 배정받은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옳게 제시한 것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은 실험법, ㉡은 문헌 연구법이다.

(가), (나)에는 각각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가 활용된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이때 (가)에 면접법, (나)에 참여 관찰법이 활용된 사례가 들어간다면 정과 무는 배정받은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옳게 제시한 것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가)에는 참여 관찰법, (나)에는 면접법이 활용된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③ 병은 갑이 배정받은 실험법, 갑은 을이 배정받은 문헌 연구법이 활용된 사례를 작성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실험법과 달리 참여 관찰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엄격한 통제 가해지는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다.
- ② 참여 관찰법과 달리 실험법은 주로 2차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다.
- ④ '△△중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자유 학기제에 대한 의견을 대화의 형식으로 물어봄.'은 면접법이 활용된 사례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소방서 소방관들과 6개월간 같이 생활하며 그들의 작업 환경을 살펴보고 기록함.'은 참여 관찰법이 활용된 사례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15 정답: ②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서비스, C는 사회 보험이다.

A 수혜자 비율은 26%, B 수혜자 비율은 28%이고 A 또는 B 수혜자 비율은 47%이다. 이에 따라서 A와 B 중복 수혜자 비율은 (26+28-47)%=7%이다. 또한 B 수혜자 비율은 28%, C 수혜자 비율은 53%이고 B 또는 C 수혜자 비율은 72%이다. 이에 따라서 B와 C 중복 수혜자 비율은 (28+53-72)%=9%이다. 그리고 A 수혜자 비율은 26%, C 수혜자 비율은 53%이고 A 또는 C 수혜자 비율은 73%이다. 이에 따라서 A와 C 중복 수혜자 비율은 (26+53-73)%=6%이다.

이때 A와 C 중복 수혜자 중 B의 수혜자 수와 B의 비(非)수

혜자 수는 동일하다. 따라서 A~C 중복 수혜자, 즉 3중 수혜자 비율과 A와 C 중복 수혜자 중 B의 비(非)수혜자 비율은 모두 3%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A~C 수혜자 또는 비(非)수혜자 비율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비율(%)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6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5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1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3
3중 수혜자	3
비(非)수혜자	12

② 3중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3%,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5%로 전자는 후자의 0.2배이다.

오답 풀이

① 2중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3%,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③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 수급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26%로 전자는 후자의 0.5배가 아니다.

④ 두 가지 이상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6%, 민간 부문도 복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5%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⑤ 공공 부조 또는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47%,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41%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16 정답: ④

ㄴ. A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을 겪지 않았다.

ㄹ. (가)에는 A의 자녀에 대한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의 사례가 나타난다. 반면 (나)에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ㄱ. B는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 또한 A가 받은 차별이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역시 알 수 없다.

ㄷ. (가)와 (나)에는 모두 역차별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17 정답: ⑤

다음 글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갈등론이다.

ㄷ. 갈등론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갈등론은 사회의 차등 분배 체계는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오답 풀이

ㄱ.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동기 유발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ㄷ.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기준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18 정답: ④

④ 다음 글의 필자는 각 나라가 자신이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면 인류는 유한한 능력과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결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가 가진 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적 특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 가능해진다.'이다.

오답 풀이

① 다음 글에서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② 다음 글에서는 전 세계의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③ 다음 글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해외 투자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⑤ 다음 글에서는 국가 간 무역 충돌 가능성의 감소와 평화 유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19 정답: ⑤

기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은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다. 그리고 해당 기준에 대한 비교 결과는 A < B이나, 이에 대한 채점 결과는 0점이다. 따라서 A는 산업 사회, B는 정보 사회인 것을 알 수 있다.

ㄱ.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강하다.

ㄴ. (가)에는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 들어가야 채점 결과가 '1점'이 된다. 그러나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산업 사회보다 정보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므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①에 들어갈 것은 '0점'이다.

ㄷ. ①에 '1점'이 들어간다면, (가)에는 정보 사회보다 산업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산업 사회보다 정보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기준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20 정답: ④

t+3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0%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둔다면 유소년 인구는 20일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년 부양비는 60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해당 연도 부양 인구는 50, 노년 인구는 30일 것을 알 수 있

다. 이때 A 시기 전체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체 인구는 t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해당 시기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년 인구 역시 t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해당 시기 노령화 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령화 지수는 t년이 t+30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 역시 t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t년 대비 t+30년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은 노년 인구의 감소율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t년의 전체 인구는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나,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모두 t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부양 인구가 t년 또는 t+30년 중 어느 연도에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과 t+30년이 같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노령화 지수는 t년이 t+30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t+30년보다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이 t+30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B 시기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t+60년 전체 인구는 100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년 인구 역시 t+30년보다 t+60년이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해당 시기 노령화 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유소년 인구 역시 t+30년보다 t+60년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며, t+30년 대비 t+60년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은 노년 인구의 감소율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t+30년과 t+60년의 전체 인구는 같을 것으로 예측되나,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모두 t+30년이 t+6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부양 인구는 t+60년이 t+30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별 인구 예측 양상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30년	t+60년
노년 인구	30 이상	30	30 이하
부양 인구	알 수 없음	50	50 이상
유소년 인구	20 이상	20	20 이하
전체 인구	100 이상	100	100

④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에 비례한다.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t년보다 t+30년이, t+30년보다 t+60년이 적을 것이므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t년보다 t+30년이, t+30년보다 t+60년이 작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유소년 부양비는 t+30년이 40일 것으로 예측되고, t년은 40 미만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30년보다 클 것이다.
- ② 노년 인구는 t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t+30년이 많을 것이며, t+60년이 가장 적을 것이다.
- ③ 노동력 부족 정도는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과 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이 가장 낮고 t+60년이 가장 높으므로 노동력 부족 정

도는 t년보다 t+30년이, t+30년보다 t+60년이 작을 것이다.

- ⑤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t년이 가장 크고, t+60년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세대 간 갈등 정도는 t년이 t+30년보다 크고, t+30년이 t+60년보다 클 것이다.

- 예상 등급 컷
- 1등급: 39점
 - 2등급: 35점
 - 3등급: 32점